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7. 12(목) / 총 4매(본문2매)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 당 자	• 과장 김기대, 사무관 홍종길 • ☎ (044) 201-3823, 3824
	근로시간 단축 노선버스 TF	담 당 자	• 팀장 강 옥, 사무관 이경수, 사무관 문기성 • ☎ (044) 201-4978, 4979, 3832
보 도 일 시		2018.7.1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 수립 본격 시동, ‘버스산업발전협의회’ 출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안착 위한 민간 합동위… 버스 구조개선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2일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 지난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는 최기주 교통학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노·사·정은 물론 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교통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협의회로서, 연말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될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와 노·사·정간의 의견 조율에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 등 버스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노선 조정은 있었으나 그간 우려했던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큰 혼란 없이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5월 31일 노사정 합의 이후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한 노사정과 지자체의 노력, 정부의 계도기간(6개월) 지정과 정부·지자체·업계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 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 특히,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정부·지자체·업계는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 버스 운전인력 충원에 집중한 결과 지난 6월말까지 전국 1,491명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 버스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bus>)
 - 버스 업계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http://www.bus.or.kr>)
 - 지자체 : (경기) '잡아바', <https://www.jobaba.net> (강원) '버스잡고' <http://busjobgo.gwd.go.kr>
- 하지만, 주 52시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전히 버스 운전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 지원, 신중년, 군 운전인력 등의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와 업계의 노사정 합의 이행 독려, 적극적인 신규 인력 채용 노력으로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내년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 “정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와 함께 준공영제 전국 확대, 종사자 인력 양성 체계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버스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근로시간 단축 노선버스 TF 이경수 사무관(044-201-4979), 대중교통과 홍종길 사무관(044-201-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협의회장	교통학회	회장	최기주	아주대 교수
정부측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경욱	
업계측	버스연합회	회장	김기성	
노조측	자동차연맹	회장	류근중	
지자체	경기도	교통국장	홍귀선	
언론인	중앙일보	기자	강갑생	
공공기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김종현	
전문가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성낙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윤혁렬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전북연구원	도시공간교통 연구부장	김상엽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대표	민만기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	강정화	

참고2

버스 종사자 증원 현황 (출처 : 교통안전공단)

구 분		2.28 기준 종사자수	6.30 기준 종사자수	증감(잠정)
준공영제 지역	서울	24,041	24,422	381
	부산	6,554	6,608	54
	인천	5,585	5,602	17
	대구	3,689	3,711	22
	광주	2,398	2,445	47
	제주	1,626	1,717	91
	대전	2,416	2,448	32
	세종	109	145	36
	소계	46,418	47,098	680
준공영제 미실시 지역	경기	23,900	24,557	657
	강원	1,985	1,982	-3
	충남	3,203	3,198	-5
	충북	2,046	2,043	-3
	전남	2,890	2,896	6
	전북	2,714	2,749	35
	경북	3,410	3,435	25
	경남	5,500	5,541	41
	울산	1,745	1,803	58
	소계	47,393	48,204	811
총 계		93,811	95,302	1,491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7.10일 기준)